코인 한파에 두나무·빗썸 동반 적자… 가상자산 시장 '흔들'

두나무·빗썸 3분기 영업적자
거래 위축에 매출 60% 넘게 감소
금리·ETF 수급 변화 '변수'



업비트와 빗썸의 실적 악화와 비트코인·알트코인 가격 약세를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업비트와 빗썸이 올해 3분기 나란히 영업적자를 냈다. 거래가 줄면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 결과다. 비트코인 가격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는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3분기 매출은 15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 줄었다. 영업손실은 35억원으로, 업비트 출범 이후 첫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빗썸도 매출이 69.7% 감소한 594억원에 그쳤고 8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거래소에 남아 있는 원화도 줄었다. 두 회사의 회원 예치금 합계는 지난해 말 7조8679억원에서 지난 9월 말 5조3608억원으로 2조5071억원(31.9%) 감소했다. 예치금은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원화다. 거래액과 같은 수치는 아니지만, 고객이 코인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는 의미다.

거래소의 적자는 지난 3분기 성적표다. 문제는 거래를 다시 늘릴 만한 가격 반등이 지금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요 통로인 미국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지자 씨티그룹도 전망을 낮췄다.

씨티그룹은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향후 12개월 목표 가격을 11만3000달러에서 9만9532달러로 약 12% 하향했다. 이더리움 목표 가격도 3028달러에서 2838달러로 내렸다.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약해지고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점을 반영했다. 새 목표가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인 6만4000~6만5000달러보다는 높다. 가격이 오를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이전만큼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미국 금리가 꼽힌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18일(현지시간) 12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나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난다. 이자가 붙지 않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이 미국 금리와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산이 됐다고 봤다. 현물 ETF가 생기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증권 계좌로 사고파는 자산은 주식처럼 움직인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함께 밀린 점을 사례로 들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금리와 기관 자금이 중요하다면, 알트코인에는 새로 들어올 투자자를 끌어모을 이유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은 대체로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 자체로 시장을 키울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기술이 나아져도 그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새롭지 않으면 돈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누구나 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한 초기코인공개(ICO), 은행 없이 예금과 대출을 하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이 새로운 투자자를 불러왔다. 최근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도 기술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새롭게 이용할 서비스가 늘어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최운열 "지정감사제, 감사 독립성 높여"

〈공인회계사회 회장〉

세계회계사대회서 회계개혁 경험 발표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 37위로 상승
"감사품질 중심 경쟁 시장 만들어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회계개혁 이후 최하위에서 37위로 올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정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나타나는 감사보수 인하 압박을 과제로 꼽았다.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세계회계사대회'에서 최 회장은 '감사품질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국의 회계개혁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의 궁극적 목표는 감사인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해 감사인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뒤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을 시행했다.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큰 기업에서 감사인을 직접 선임·교체하는 구조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엄격하게 지적하는 감사인이 교체될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 회사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그는 제도 도입 당시 기업의 선택권 침해와 감사보수 상승을 우려하는 반대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 특유의 문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해결책이었다"고 말했다. 감사보수 역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소개한 수치에 따르면 개혁 5년 만에 지정감사인을 배정받은 상장사 비중은 8.4%에서 54%로 늘었다. 평균 감사보수는 1억21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조사 대상 63개국 중 최하위에서 2021년 37위로 상승했다.

최 회장은 지정감사를 마친 기업들이 감사인을 다시 자율적으로 선임하면서 회계법인 간 가격 경쟁과 감사보수 하락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들이 감사 단가보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중경 IFRS 재단 이사는 개혁 이전 일부 기업이 감사 역량보다 낮은 보수를 기준으로 감사인을 선택했다고 진단했다. 최 이사는 주기적 지정제를 시장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도입한 차선책으로 평가하며, 기업의 감사인 선택과 지배구조가 성숙할 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참석자들도 한국의 제도를 평가했다. 인 더취안 중국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는 지정제가 감사 실패를 막고 회계업계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앤드류 리커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한국의 회계개혁이 경제적 성취를 지속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엔비디아 악재에도 美개미, 5950억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전주 대비 40% 늘어

창업자가 불명예 퇴진한 엔비디아를 두고 서학 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위기보다 기회에 무게를 실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2~18일 서학 개미 순매수 1위는 엔비디아(4억4698만달러·약 5950억원)였다. 직전 주(3억1974만달러)보다 약 40% 늘어난 규모로, 주가가 흔들릴수록 매수세는 오히려 거세졌다.

시장 기대를 웃돈 실적도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간첩 의혹 불륜' 스캔들 속에 지난 12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사임 직전인 11일 173.73달러에서 18일 150.96달러로 일주일 새 13.1% 떨어졌다. 17일 발표된 3분기 매출은 1158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3% 늘며 시장 전망치(1091억달러)를 크게 웃돌았지만, 이튿날 주가는 오히려 2.89%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부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심리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 전 CEO 퇴진이 남길 파장을 두고 증권가의 진단은 엇갈린다. DB증권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충격이 크지만 구조적 악재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국내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수요 주체가 범용칩(GPU)에서 빅테크 자체 맞춤형 칩 등으로 분산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DS투자증권은 "후임 경영진의 기술 로드맵 실행력과 공급망 조율 능력이 확인되기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 접근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를 스캔들 너머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 주가가 사생활 논란 이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협력사와의 순환금융 구조와 인공지능(AI)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인 위험으로 짚었다.

/김아영 기자 aykim@

서학 개미, 美 대표지수 ETF 9조 담았다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의 1.8배

미국 기술주가 조정받는 동안에도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사들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 3종에 올해 들어 유입된 개인 자금은 9조원을 넘어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의 1.8배에 달했다.

1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집계한 결과, 18일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합계는 9조2825억원이다. 올해 215거래일 가운데 207일 동안 3종 합산 기준 순매수를 기록했다. 3월 19일 이후에는 16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다.

상품별 개인 순매수액은 TIGER 미국S&P500 ETF가 5조44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2조5300억원,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1조306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만 3종에 3조7793억원이 순유입됐다.

자금 유입에 따라 3종의 순자산 합계는 연초 22조3075억원에서 18일 35조8293억원으로 늘었다. 이들 상품의 개인 순매수액은 올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전체 개인 순매수액 25조6876억원의 약 36%를 차지했다.

김상율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 운용본부장은 "미국 대표지수 ETF 3종에 올해 9조원이 넘는 개인 자금이 모인 것은 미국 대표지수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본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퇴직연금 불공정 영업 적발

가입 기업 규모 따라 상품 안내 소홀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 제시하고, 중소기업에는 안내를 소홀히 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은 약 20%였지만, 이들의 고수익 상품 가입 건수는 전체의 5~10%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날 4대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가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품 안내가 달라지는 관행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연말에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집중되는 점을 이용해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계했다. 연금저축펀드 고객의 순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관행 역시 문제로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 14곳이 순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이익을 제공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사례도 제시됐다. 한 사업자에서는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 가입자의 75%가 상품 만기 후 다른 상품과 비교하지 않고 같은 상품에 재가입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만기 시점에 더 유리한 대체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비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허정윤 기자